

#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

2022. 11. 9.

충남연구원  
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



## 목차

- I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, 목적\_1
- II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\_2
- III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\_3
- IV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\_9
- IV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\_10
- ※ 참고1: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수시보고\_11  
참고2: 집중관리품목 관리카드(예시)\_12

# I.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, 목적

## 공급망 위기 지속, 정부 공급망 기본법 발의, 대외거래 비중 높은 충남은 선제적 대응 중요

### ▪ 공급망 위기 관련 이슈 대두

- 코로나19 상황,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, 고금리 등으로 경기 하강 압박 지속
- EU 에너지 수급 불균형,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, 미국-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 증가
- 일본 경제안전보장법, 중국 수출입규제 강화, 자원 보호주의 등 주변국들의 무역장벽 우려

### ▪ (정부)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(공급망 기본법) 발의

- 기본법 제정 배경 : 공급망 위험 포착부터 종합적 지원, 위기 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 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규정하기에 한계
- 주요 내용 :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재정, 세제 지원 근거 마련, 관련 기금 신설, 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등
- 기재부가 총괄, 조정 기능, 소관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, 현재 법안 발의(10/17)

### ⇒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의 필요성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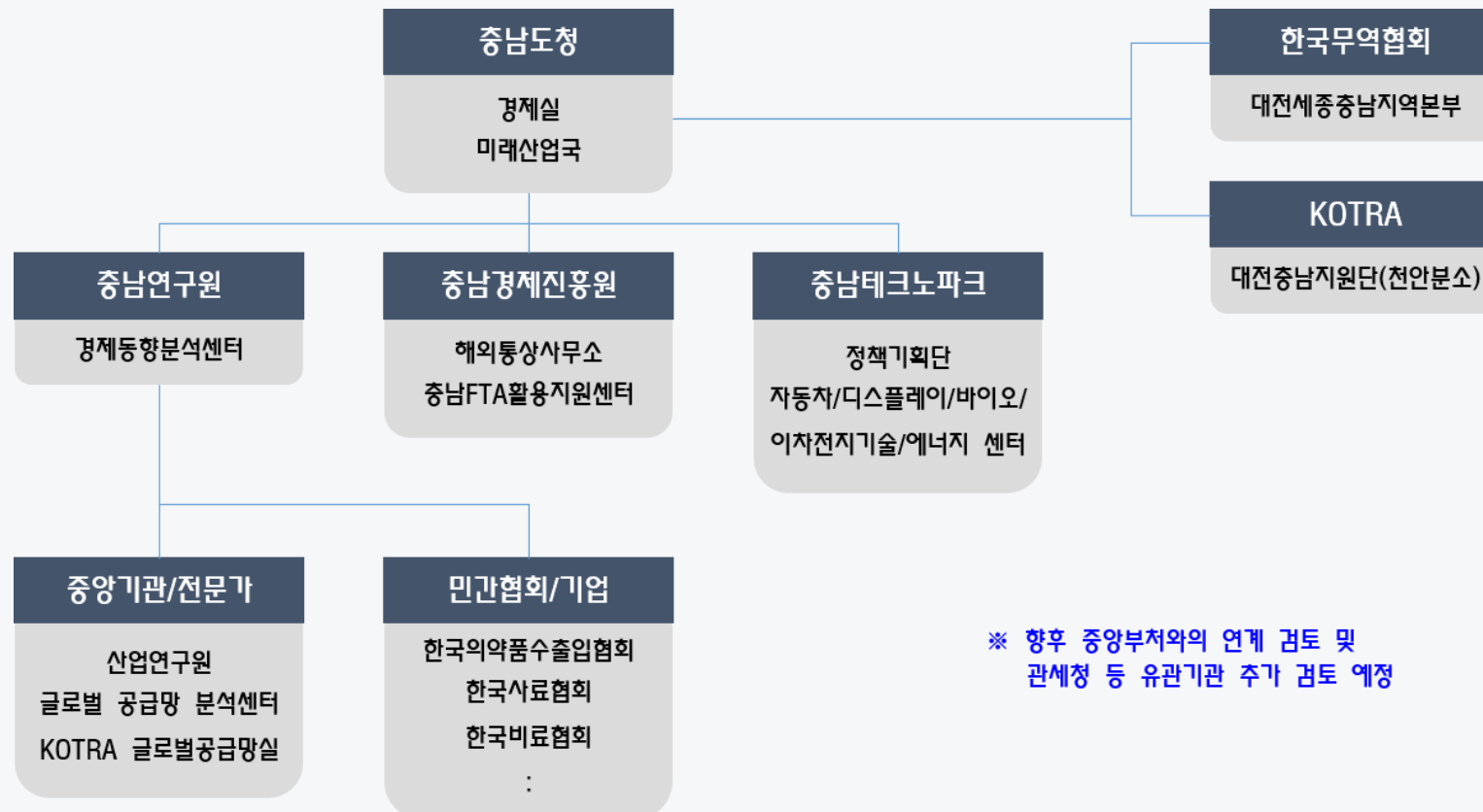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미·중 패권 다툼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
- 일본 수출규제, 미국 철강 수입규제, 미·중 무역갈등 등 공급망 관련 위기는 지속, 발생시 연관산업에 파급되어 영향이 커짐
- 충남은 대외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 큼, 특히 중국과의 거래 비중이 높아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

## 표.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

###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⇒ 관리회의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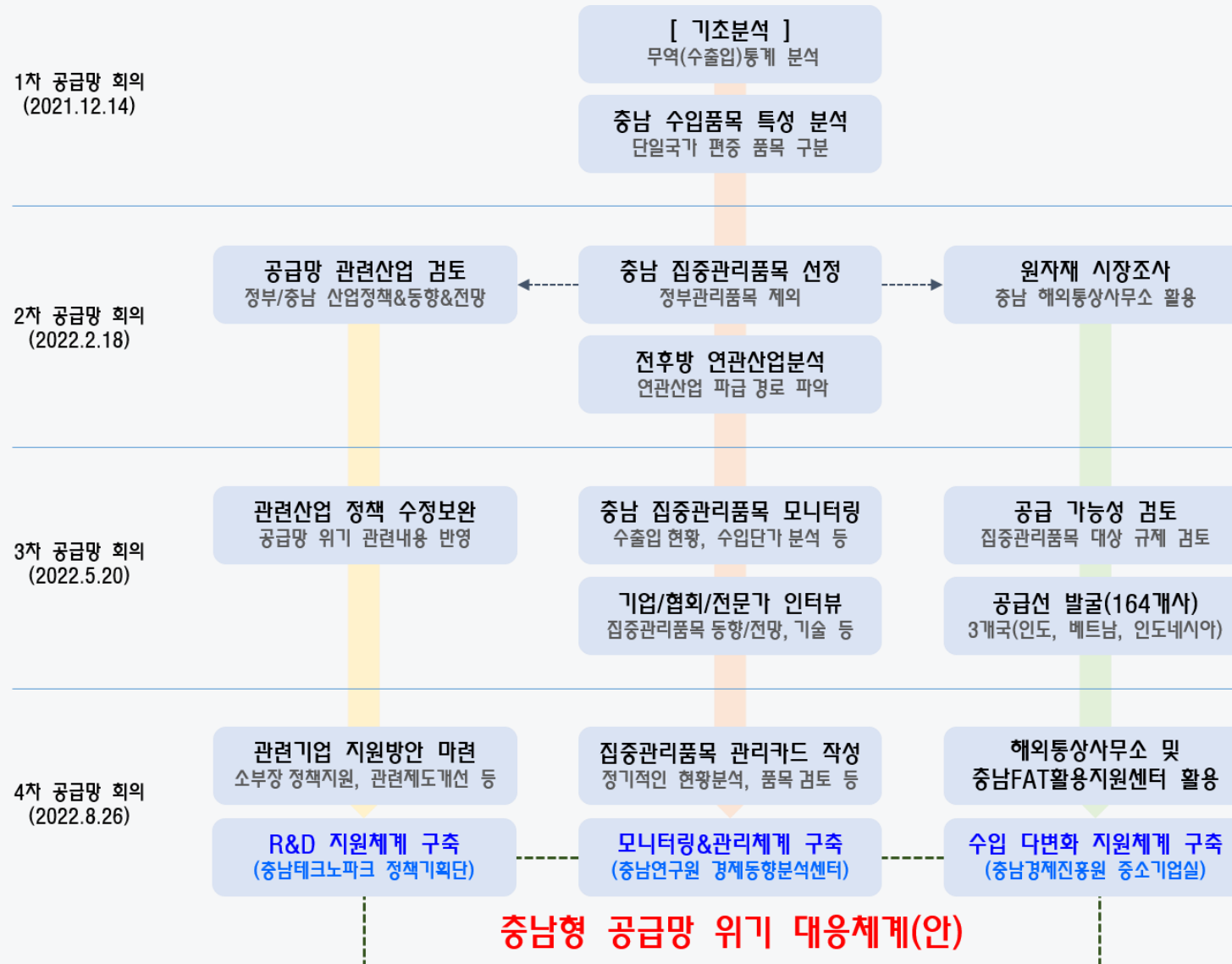
#### ▪ 충남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운영(4차례)

- 2021년 말 1회, 2022년 현재까지 3회, 총 4회의 **공급망 관리 회의 운영**(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)
-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, 전문가, 민간협회/기업 포함 거버넌스 구성 →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


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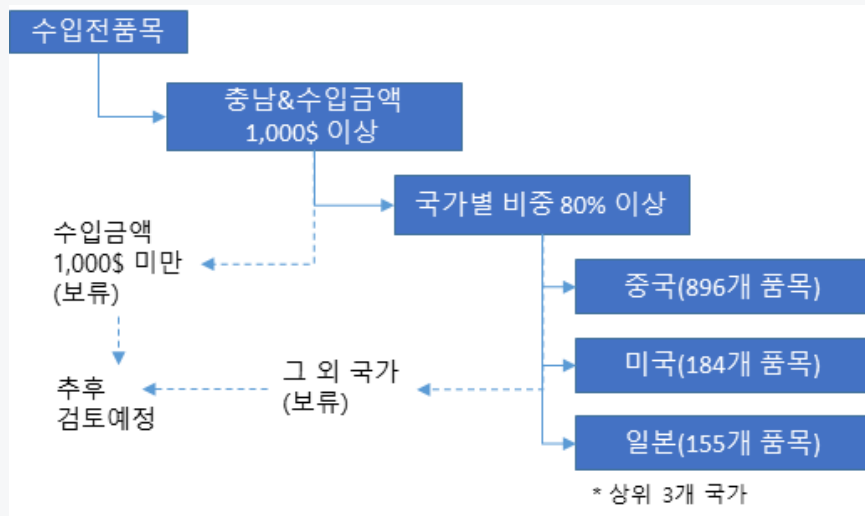
### 공급망 관리 회의 차수별 추진내용 요약


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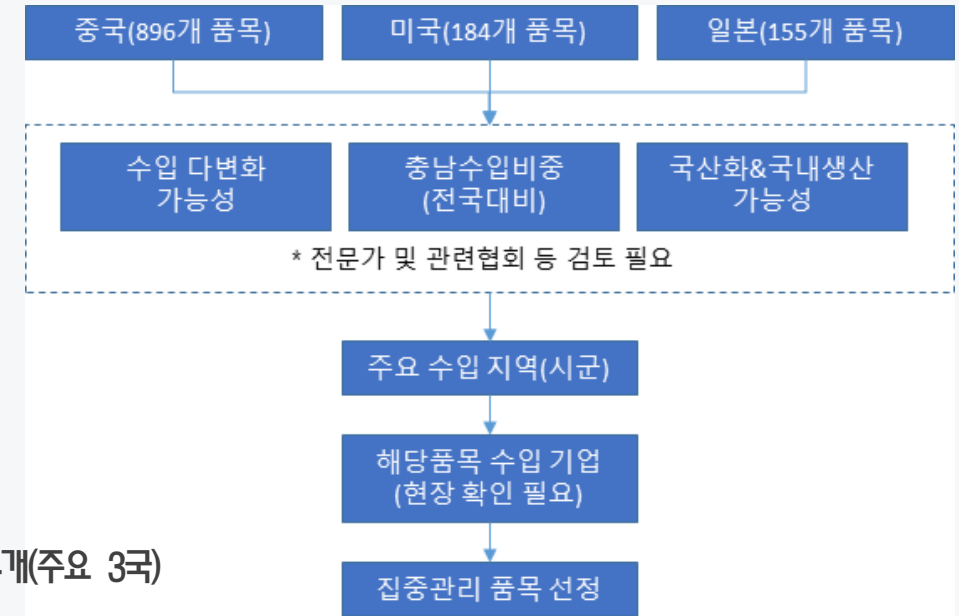
### 1차 공급망 관리 회의 : 무역 통계 분석, 충남 수입 특성 분석 ⇒ 집중관리 품목(안) 도출

#### 수입품목 통계 분석 과정



※ 3천개 수입품목 → 단일국가 편중 품목 1,419개 → 수입 다변화 검토 324개(주요 3국)

#### 2차 집중관리 품목 선정 과정



#### 집중관리 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 3가지 : 수입 다변화 가능성, 충남 수입 비중, 국산화 및 국내생산 가능성

- 수입 다변화 가능성 : 현재 단일 국가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도, 다수의 국가에서 수입 가능한 경우 대응이 가능함 → 수입 다변화 가능 품목 제외
- 충남 수입 비중 : 전국 수입 대비 충남 수입 비중이 낮은 품목은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지만 충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→ 비중 낮은 품목 제외
- 국산화&국내생산 가능성 : 국산화 기술 보유 또는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중장기적인 대응 가능 → 가능 품목 제외

\* 다만, 생산설비 구축이나 생산단가 문제로 단기 대응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전문가 의견 검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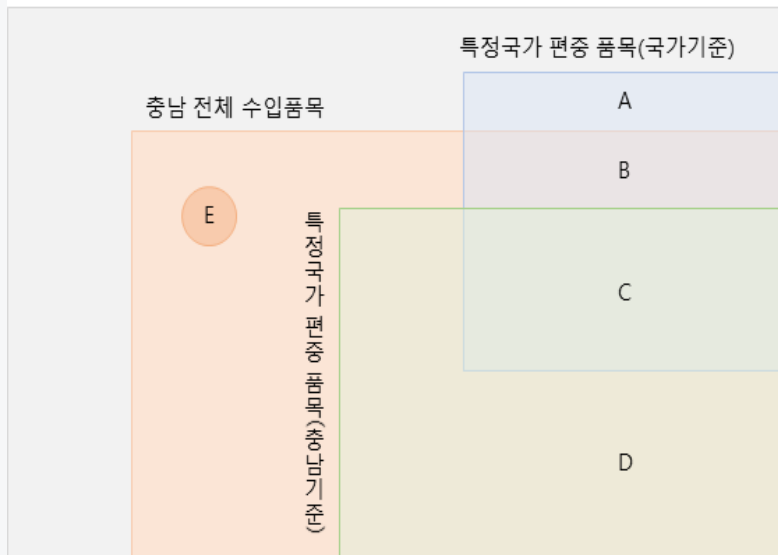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### 2차 공급망 관리 회의 : 집중관리 품목 선정, 전후방 산업연관관계 분석

#### ▪ 충남 수입품목 분석, 27개 집중관리품목 선정

- 수입 다변화, 국산화 등을 검토하여 **집중관리품목 27개 선정** : 의약품, 비료, 사료 관련 품목 다수
- 해당 품목 관련 협회, 업체 및 전문가 자문 실시, **산업연관분석 실시** → 위기 발생시 연관산업 영향 고려

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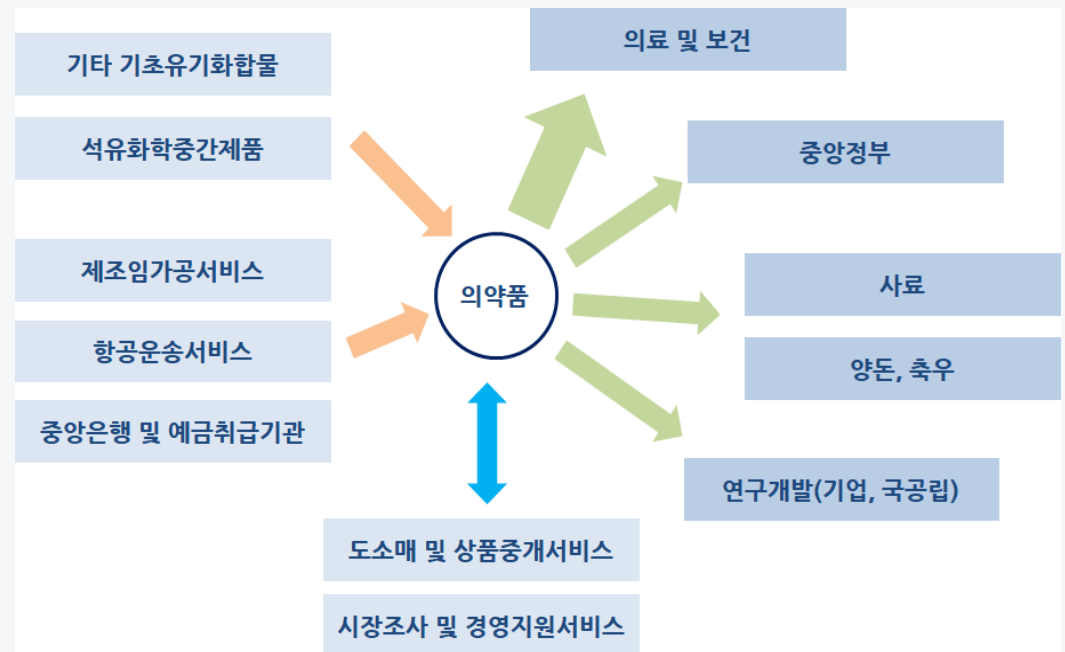
A : 국가단위에서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이나 충남에서 수입하지 않는 품목

B : 국가단위에서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이나 충남에서 수입 비중이 낮은 품목

C : 국가단위에서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이면서 충남에서도 특정 국가 편중이 높은 품목

D : 국가단위에서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은 아니지만 충남에서는 특정 국가 편중이 높은 품목

E : 특정 국가 편중 품목은 아니지만, 현장에서 볼 때 관리가 필요한 품목



※ 충남은 C 영역의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, D, E 영역의 품목은 집중관리
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### 3차 공급망 관리 회의 : 집중관리 품목 모니터링, 전문가/협회/기업 인터뷰, 수입 다변화 검토

#### ▪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
- 수입 현황 파악, 수입국가, 수입시기 변화, 수입 단가 등 모니터링 실시
- 전반적인 수입 현황 원할 / 수입증가 품목 14개, 감소 품목 13개 확인 / 수입단가 상승 15개 품목, 최대 11배 상승
- 일부 품목(3개)은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입 실시, 편중 국가가 변화한 품목(3개) 확인

#### ▪ 집중관리품목 관련 협회/기업 현장 인터뷰 실시

- 00의약품00협회 :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은 구조적 문제, 국내 생산 불가, 바이오의약품 시장공략 중요, 충남 동물의약품 유리
- 00비료협회/00사료협회 : 원료 대부분 수입 의존, 원료 가격 인상으로 비료/사료 가격 인상, 가격 통제로 생산업체 위기
- 사료 생산업체(00팜스) : 공급망 위기는 생산 현장에서 직접적 대응 불가, 간접적 지원과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

#### ▪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다변화 가능성 검토(충남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)

- 충남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(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) → 집중관리품목 생산여부 및 공급처 현황조사 실시
-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공급가능성 검토, 각 국가(3개국) 별 주요 현황 파악
- 27개 품목에 대한 해외바이어 188개사 발굴 → 수입 다변화 가능성 검토


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
### 3차 공급망 관리 회의 :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 제시

- 글로벌 공급망 영향은 지속, 중장기적인 대안 필요 → 정부 정책과 연계, 충남 도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중요
- 수입단가 상승, 일부 품목 수입 국가 변경 → 품목별 접근 필요, 차별화된 대응방안 중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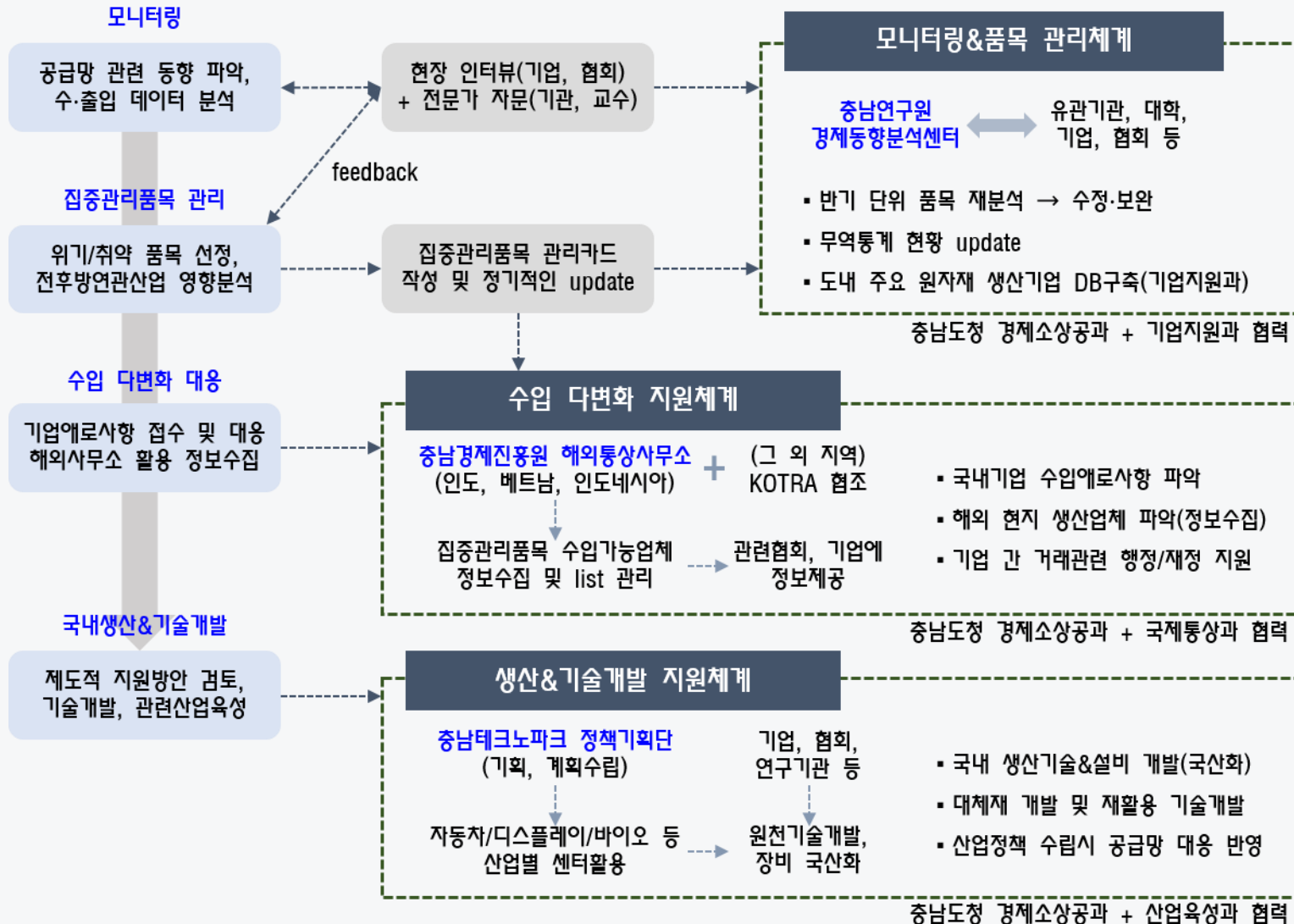
## Ⅲ.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추진경과

### 4차 공급망 관리 회의 : 생산&기술지원 방안 검토,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(안) 제시

- 집중관리품목에 산업분류 매칭 및 생산&기술지원 사례 발굴, 정책검토(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)
    -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생산&기술지원을 위해 표준산업분류를 고려하여 품목-산업 매칭 → 정책 추진시 활용
   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R&D 과제 중 공급망 관련 사례 탐색
    - 산업별 중장기 정책 수립시 집중관리품목 및 공급망 관련 지원방안 검토 등
  - 1차-4차 공급망 관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‘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(안)’ 제시
    - 공급망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공유
    - 단기적 대응 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응도 가능하도록 체계의 지속성도 검토
    -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, 충남도 관련실과와의 연계도 고려
- 
- 사전 위기징후 모니터링부터 수입 다변화,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까지 총 세 부문으로 구성
    - 모니터링&품목 관리체계 : 공급망 관련 동향 파악, 데이터 분석, 현장의견 수렴, 집중관리품목 관리, 기업DB 구축
    - 수입 다변화 지원체계 : 집중관리품목 수입다변화 가능성 검토, 수입 가능 기업 탐색 및 list 작성 및 홍보/지원
    - 생산&기술개발 지원체계 : 집중관리품목별 산업분류코드 매칭 및 관련기업 list 작성, 공급망 대응 사례 발굴&지원, 산업정책 검토

## IV.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

### 모니터링&품목 관리 + 수입 다변화 지원 + 생산&기술개발 지원



## V.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

###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, 충남도는 적극적 대응 중, 향후 정부 및 타시도와 연계 검토

#### ▪ 요약 및 시사점

-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, 자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공급망 관련 위기는 진행 중
- 충남은 원자재 수입→중간재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공급망 위기에 취약,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다수
  - \* 충남 9월 누계 전체 수입액 중 1차산품 61.7%(전국25.3%), 전체 수출 중 중간재 95.3%(전국75.2%) 차지
- 공급망 위기는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 대응이 중요,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 ⇒ 충남도는 대응체계 구축 중

#### ▪ 향후 대응방향

- 충남형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운영, 비정기 TF 활동 지속 → 공급망 위기 발생시 선제적 대응, 적시 지원
- 해외사무소 확대 및 운영 필요 → 주요 3국(중국, 일본, 미국)으로 확대,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및 수입다변화 부문 업무 추가
- 지자체 차원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 →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정기적인 토론회, 포럼 개최 등
-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(정부 역제안)
  - 관세청 수출입데이터 정보공유, 코트라 해외사무소 활용 방안, 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시 지자체 활용 방안 건의 등

※ 지역단위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에는 전담조직 운영 비용과 정보의 부재 등 제약이 있음

현재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,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## [참고1]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수시보고(경제동향분석센터)

###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이슈 모니터링 → 수시 보고 형태로 관련동향 및 분석결과 보고

- 수입다변화 요청기업 품목(질석)검토
- 석탄 수입 현황분석(인도네시아 1월 석탄 수출 금지 조치)
-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모니터링
-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조치 점검
- 러시아산 펄프 공급난 우려 품목 검토
- 건설업, 철근, 시멘트 관련 동향 점검 등
- 디스플레이 원부자재 수입동향(중국봉쇄정책, 대만 국제정세 불안요인 반영)

#### ■ 니켈리스크 증가, 도내 니켈 수입 동향 점검(2022.9.28)

- 분석 배경 : 자국중심주의 확산, 러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격변동성 확대, 정부의 니켈비축량 부족 등으로 공급망 우려 대두
- 분석 대상 및 내용 : 니켈 수입 동향과 관련 기업 동향

- \* 니켈의 주요 생산국은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러시아 등 최근의 니켈 공급의 주요 증가처는 인도네시아
- \* 주요 용도는 스테인리스강 73%, 비철합금 9%, 배터리 8%, 도금 5% 순(자료맥튀리)
- \* 니켈 충남 수입 동향(9월누계 기준)

우리나라 전체로는 과 형태의 니켈 수입이 가장 많고 배터리산업의 직접적인 원료인 황산니켈 수입도 큰 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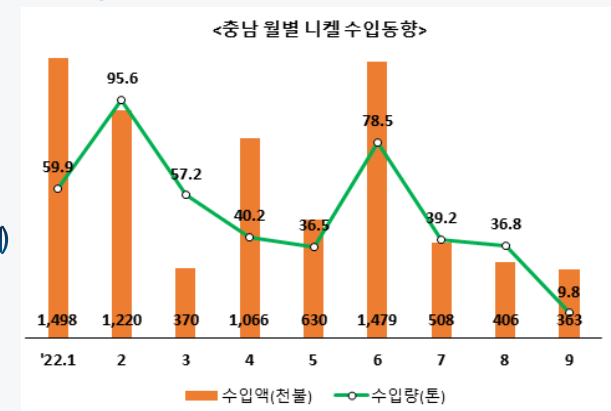
(니켈(HS75) 1,447,949천불 전년동기비 472%↑, 황산니켈(HS283324) 35,011천불 전년동기비 1272%↑)

충남은 전국과 달리 스테인리스강과 관련된 웨이스트·스크랩과 합금,도금 등에 주로 사용되는

형태인 판·시트·스크림·박 형태로 수입(9,324천불, 전년동기비 406.6%↑)

황산니켈 수입은 전무한 상태(배터리 관련 업체 중북과 울산에 입지/ 도내 황산니켈 생산업체 3곳, 니켈 관련 주요기업 약 23개)

- \* 기업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재고관리로 연초부터 수입량 증가, 최근 경기둔화 우려로 수입감소 시현
- \* 공급망 우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



## [참고2] 집중관리품목 관리카드(예시\_외부 비공개)

품 목 명 :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black; color: black;">XXXXXXXXXX</span>	주요 수입 국가 비중(2022년 6월 기준(누계)) • 충남 : <b>중국 87.2%</b> / 핀란드 10.5% / 이탈리아 2.3% • 전국 : <b>중국 94.0%</b> / 일본 3.0% / 핀란드 1.8%
품목코드(HS 6단위) :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black; color: black;">XXXXXX</span>	
주요 용도 : 화학합성, 환원제, 촉매/시약의 원료 등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&lt;충남 수입금액 추이, 천불&gt;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&lt;충남 수입단가 추이, \$/kg&gt;</p> </div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음, 중국 무역거래 환경/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             ⇒ <b>중국수출 규제시 위기발생 가능성 높음</b>, 일본, 핀란드,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국가로의 <b>수입 다변화가 필요</b></li> </ul>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&lt;전국 수입금액 추이, 천불&gt;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&lt;전국 수입단가 추이, \$/kg&gt;</p> </div> </div>	
관련 동향&이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 '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' 보고서 발표, 수입의존도가 90%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%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 대상              ⇒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.5%, 대부분이 유기/무기 화합물, 유리, 의료용품 등 산업용 원자재 (출처 : 연합뉴스, 5.30)</li> </ul>
정부 및 충남 지원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부 119개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용(EWS) 중, 공급망 안정화 노력 중</li> <li>•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기업 탐색, 인도소재 기업 2개소 발굴</li> </ul>
자료출처 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, update 2022.8.25	